

선교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변방인(邊方人)” 및 “변방성”과 선교적 의의 The “margins of society” and “marginality” from a missio-anthropological viewpoint and missional implications¹

김철수 (C.S. Caleb Kim, Ph.D.)

1. “변방인”과 “변방성”의 개념 정리

사회적 변방이나 변방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은 학문적 작업이다. [사회학 등에서는 이미 “주변인”이라고 흔히들 번역했지만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선입견을 좀더 배제하는 뜻에서 본고에서는 “변방”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다.] 변방인에 관한 많은 이슈들은 이미 사회학을 비롯하여 여러 인문학 분야에서 (선교학을 포함하여) 다루어져 왔다.² 사회학적으로나 혹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³ 신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서의 변방 개념을 논할 수도 있다. (이 후자는 본고에서 성경에 나타난 변방 개념을 설명할 때 좀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또 경제나 인종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변방성(marginality)을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 누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변방의 영역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방이라 함은 어떤 것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각 사회도 가장자리가 존재한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든지 소위 주류(main stream)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주류는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이들만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해서 주류라 함은 본인들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적인 주체가 되는 이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문화적 주체가 되지 못하거나 문화의 주된 흐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는 이들을 인류학적으로 사회적 변방인이라

¹ 본 소고는 필자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에서의 “기독교 인류학과 변방인” (Christian Anthropology from the Margins, MB524) 과목에 포함된 강의 내용이며 계속 보완 중임을 밝힙니다.

²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독자들은 amazon.com 이나 대학/대학원 도서관의 database 를 통하여 많은 연구 서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³ 사회학과 인문학에서 여러 저자들은 사회적 변방인의 개념을 사회에서 여러 이유로 소외되거나 힘없고 억눌린 약자들과 동일시 하기도 한다. 연구가들은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고자 하며, 또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⁴ 변방인(margins) 혹은 변방성(marginality)에 대한 연구 글들은 사회학 분야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dam Weisberger 의 “Marginality and Its Direction” (*Sociological Forum* Vol. 7, No. 3 (Sep. 1992), pp. 425-446) 참조.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특별히 북미 아시아 이민자들의 상황을 예로 들어 변방성을 논한 글로서 Lee Jung Young 의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ublishers, 1995. 마지널리티: 다문화시대의 신학. 신재식 역. 포이에마, 2015) 참조. 후자는 사회학적 이론을 소화한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변방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는 신선한 시각을 던져주고 있는데, 선교적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는 주로 그 사회에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변방의 의미는 보통 소외의 개념을 동반하기도 한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좀더 설명하면 “사회적 변방인들 (people on the margins of society)”이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전통적 혹은 전형적인 문화의 기준(traditional or traditional cultural standards)이나 일반적인 사회의 기대치(norms expected by society)에 미치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변방의 개념은 인종과 언어를 중심으로, 혹은 이민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생각될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힘의 크기에 따라서 변방 개념과 변방인의 범주가 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문화적인 주류에서 벗어나 사고나 행동양식이 특이한(idiosyncratic) 이들과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외부로부터 유입하거나 창출하는 이들 역시 변방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방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은 유의해야 한다.⁵ 인종이나 언어가 다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속한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종이나 언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차별의식으로 인하여 그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조선 시대 사회의 서자들이 아마도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남녀 차별이 문화적으로 심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방인이 될 수도 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인들 중에 주류 사회의 흐름에 동승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사회의 변방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이 주가 되는 군대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변방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이 본다. 무숙자들 중 많은 이들은 한때 사회적 주류에 있던 이들이었지만 경제적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됨으로써 사회의 변방인이 된 경우이다. 이러한 변방인들은 사회의 주변에 여러 종류의 “소수자 (minority)”들을 형성한다.

하지만 본 소고에서 필자는 변방인이라는 개념을 사회학적 차원에서 말하는 사회 도덕과 정의와 윤리 등의 가치 개념에서가 아니라 문화인류학과 선교학적 측면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 변방인이라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문화(subculture)” 범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위문화(subculture)”란 어떤 문화적 구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여러 동질 그룹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남가주를 구성하는

⁵ 변방의 개념과 변방인 범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 사회마다 주류 문화의 특징이 다르므로 어떤 사회에서 변방으로 취급되는 범주가 다른 사회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유의할 것은, 동일 사회에서 변방에 대한 정의가 너무 분명할 경우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그 잣대로 서로를 분화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문화권의 변방의 개념을 문화적 내부자(emic)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하게 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변방의 개념과 변방인 범주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켜서 불필요하게 변방인 개념을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200 개 가까운 여러 민족들은 “하위문화”들이다. 하지만 하위문화가 언제나 비주류 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다.⁶ (이에 대한 논의는 문화인류학 참고 도서들을 참조 바람) 본 소고에서 필자가 특별히 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위문화로서의 변방인의 변방성이 갖는 선교적 의의이다. 하지만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회 혹은 문화의 변방성(marginality)과 중심성(centrality) 그 자체가 어떤 선교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중심에 있어도 선교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중심에서도 변방인이 될 수 있기에, 변방성이라 함은 문화인류학적으로는 변방에 놓이게 된 결과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선교 차원에서 볼 때에 변방성이란 하나님의 가치를 좇은 결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선교학적 측면에서 변방성(marginality)이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의 도구가 된 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 후자에서 말하는 선교학적 의미에서의 변방성의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 변방성이 갖는 영적, 선교적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의 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선교적 변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을 성경에서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당신의 구속 역사 속에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선교를 진행해 오셨는지를 들여다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성경에 나오는 변방인들과 변방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2.1. 구약 성경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필자가 정의하는 변방인의 범주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 장에 소개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살펴 보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회의 변방에 놓이게 된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변방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변방성이 일반 사회학에서는 소외의 결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선교학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을 말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러면 본 항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변방인들의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었지만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문화적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고대 근동은 오늘날의 중동과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현대 중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⁶ “변방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들 중에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약자에 속하는 이들은 다른 기존 하위문화들과는 달리, 변방인들로 있는 한 제대로 정착된 문화 구조나 안정된 심리를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유색 인종 이민자들은 아직 사회의 주류 문화에 편승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들 사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 면에서 유동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불안의 심리가 상당히 강하며 때로는 반사회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대에는 더욱더 아들을 통한 상속 개념이 중요하였다. 상속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줄 아들이 부재한 “아브람”은 문화적으로는 변방인이었다. 아프리카 인들과 같이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에도 아브람의 아들 부재는 그리 복스런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브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 역시 변방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며 믿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다윗 역시 변방을 수도 없이 겪었던 사람이다.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였다 (삼상 16:13). 사울 왕의 곁에서 그를 음악으로 수종들면서 처음에는 왕의 총애를 입었다 (삼상 16:21-23). 하지만 왕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다윗은 결국 억울한 도망자로 변방을 살아야만 했다 (삼상 17~27).⁷ 아둘람을 비롯한 그의 변방의 경험은 그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한 준비였음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가 체험한 변방성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변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맞볼 수 있었다. 비록 나중에 또 실수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룩한 왕으로서 그의 후손들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킬 수 있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시 89:49 참조)

또 마태복음 1 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구약의 다섯 여인들 역시 모두 사회적 변방인들이었다. 라합과 룯은 이방인이었다. 특히 라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직업상 당시 일반 사회의 주류에 속하기 어려운 이였다. 다말과 밧세바 역시 그들의 삶의 여러 정황상 유대 전통에서 볼 때에 정통적 유대 여인은 아니었다. (창세기 36 장의 다말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는지 가나안 여인이었는지 전통마다 달라서 확실하지 않다. 헷족 사람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 역시 세바의 딸이라는 뜻이며 본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가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을 비롯한 고대 자료들 역시 확실한 기원을 말해 주고 있지 않다.) 마리아 역시 시골 여인으로서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사회적 주류 출신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이나 오늘의 중동 사회에서 여인이 주요 인물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다섯 여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

열왕기상 17 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에 나타내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방은 어찌 보면 구약의 전통적 이스라엘 사회에는 영적으로 변방이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 내용이 왕상 17:7-

⁷ 삼상 22:1-2 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피신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본문은 환난 당하고 빗지고 원통한 자들 약 사백명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처럼 묘사한 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다윗과 그의 그룹이 겪었을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변방의 고통은 다윗이 지은 시편 57 편과 142 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다윗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기대 때문이었다. 이 두 시편은 그의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잘 보여준다.

9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수년 동안 있을 것이 이미 예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힘든, 그것도 그 당시 바알 종교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보내셨을까? 여기서 본문에 대한 주경은 생략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방을 염두에 두고 계셨으며 또 변방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다.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을 좀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변방인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위의 몇가지 예를 통하여 우리는 변방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변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게 된다. 또 이 변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것인지 또한 배우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 공동체의 특징이 변방성에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해 준다. 신명기 24:17-22의 본문을 보면⁹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있음을 알려 주셨다.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은 분명 사회적 변방에 위치한 이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호하며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다. 그래야 하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서 본문에서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변방에 있었던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느 사회이든지 노예가 그 사회의 중심일 수는 없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은 애굽이라는 당시 거대한 문명 사회에서 그들이 변방에 있던 나그네 민족에 불과했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있는 애굽을 당신의 선교의 도구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사회의 변방에서 날마다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온 민족을 불러내셨다. (요즈음 현대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성과와 효과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이 출애굽에서 찾아 주신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대로 구해 내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계속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속사적 존재 의미는 출애굽을 중심으로 항상 상기되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여 그 지역의 강력한 다윗 왕국을 이룩한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속되어 나온 노예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그들은

⁸ 본문은 여호와와의 통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과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운용(operation)의 특징 하나를 또 보게 된다.

⁹ 레위기 19:9-10 역시 참조.

잊지 말아야 했다(히 11:13; 이 개념은 신약의 교회 개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cf. 벧전 2:11). 따라서 변방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할 자기 정체성이기도 하였다.

죄와 변방성

이제 신약에서의 선교적 변방성을 논하기 전에, 구약에서 변방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언급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죄와 변방성과 선교와의 관계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류는 죄의 결과로 서로를 소외시키기 시작하였다. 죄성을 갖게 된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으로써 타인과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힘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이나 혹은 정치적인 타협으로 인간 사회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바빌론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구축된 바벨탑에 순응하지 못하거나 충성하지 않는 이들은 변방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바벨탑”이라 함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필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가치들과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함으로써 형성된 문화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바벨탑이 문화의 심층 구조 중앙에 가장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잡은 사회의 시스템을 성경은 “바빌론”이라는 은유(metaphor)로써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사 13:19; 이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성경은 묘사한다—사 13:4-22; 램 25:12; 50:2-3; 단 2:31-38 참조.) 이러한 바빌론적 가치를 사람들은 문화적 삶을 통하여 본인들도 모르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을 계속 선택해 간다. 이를 위하여 바빌론은 끊임없이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 사회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 그 결과 바빌론은 그 중심에서 도태된 변방인들을 계속 양산하면서, 이로 인하여 각양각색의 부정적인 변방의 영역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변방의 기원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바빌론을 건설하게 하는 동력인 인간의 죄성이다. 죄가 변방을 낳게 된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변방을 통하여 인간은 죄성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변방에 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물론 변방에 처했다고 해서 모두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방 자체가 천국은 아니며, 사회적 변방 영역들 역시 구속이 필요한 인간들의 삶의 자리일 뿐이다. 다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방에 처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변방의 의미를 성경적 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변방과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 영적으로 먹혀버렸을 때에 그 타락한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은 모두 변방인이었다. 바빌론의 중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변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함으로써 변방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바로 이 변방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교를 수행하셨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바빌론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는 변방인의 자리에 계시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변방성은 하나님의 선교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2.2.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5:21-28 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지금의 레바논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¹⁰ 마태복음 15:21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변방인은 여러 다른 이유로 주류 사회의 외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가나안 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의 대명사로 사용되어 왔다.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인들과 가나안 인들은 함께 이웃하고 살았지만 (오늘날 팔레스타인 상황처럼)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섞여 살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인들은 변방 중의 변방이었다. 더욱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상태였다 (22 절). 그 여인의 이름도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이름 없는 “가나안 여자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이 여인은 본인이 살고 있던 사회에서 수치스런 (stigmatized) 삶의 정황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26 절에 나오듯이 중동인들이 경멸하는 동물인 “개”에 비유될 만큼의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변방의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으로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그녀의 간청을 들어준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자 하나님의 지상 선교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변방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나 엘리트들을 제자로 선택하여 선교를 수행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그 사회의 힘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적 구속 사역에 초청하셨다. 즉, 변방에 놓여 있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5:29-31 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고쳐 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능력을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을 치유하는 데에 사용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와 또 그러한 선교적 접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하고자 하신 인간의 원초적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에 반드시 숙지하고 가슴에 품어야 할 선교적 원리이다.

기실 예수님 자신부터 변방인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선교의 주체이시며 복음의 내용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변방인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다.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이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런 변방의 하나님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교의 모델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교회 시대의 선교에 적용한다면, 변방성은 선교 수행 방식의 속성(modality)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실천해 오고 있는 선교 방식들은 이 변방성의 선교적 틀에 의해서 가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교신학적 질문들을 해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극치인 성육신 사건은 왜 변방에서 일어났을까? 메시아이신 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변방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오셨을까?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통찰들은 본고에서는 지면의

¹⁰ Word Biblical Commentary, New Bible Commentary 등 참조.

한계상 논의하지 않겠다.¹¹ 다만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변방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적 접근이 변방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핵심 가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교적 가치는 무엇일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나타남이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이 신적 계시는 변방성을 통하여 그 나타남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신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좀더 이해가 쉬운 땅의 단어를 사용해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인간에게 창조를 통하여 주어진 성질, 즉 인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 인간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성질은 그 기원이 하나님 자신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선한 인격성은 하나님의 원래 성질인 신성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그 특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당신의 본질인 “사랑”에서 나타난다. 성육신 사건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사랑의 극명한 계시이며 최고의 실천이기에 우리는 예수의 성육신과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얼마만큼의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겸손하심과 다르지 않으며, 그 겸손의 극치가 성육신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인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육신에서 우리는 참 인간의 본 모습과 회복되어야 할 인간의 성질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만큼 낮고 외진 변방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이 단순한 소외의 사건이 아니며 소외를 정당화해 주는 사건도 아님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인 신적 겸손하심의 극치가 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신적 변방성은 따라서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폭로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겸손하심은 우리의 교만과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겸손함을 통하여 흘러나온 신적 사랑은 그 어떤 교만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어떤 힘도 인간의 교만을 깨고 죄를 회개시키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도 인간의 죄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참 인간이 되심으로 희생이 수반된 겸손하심을 보여 주시으로써,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만한 영혼들은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수의 변방성은 사회학적 차원에서 말하는 소외 계층을 대변해 주는 약자를 위한 신학적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 준 구속의 계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계시의 빛에 자신의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변방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찾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이다.

¹¹ 예수님의 변방성(marginality)에 대한 깊은 신학적 고찰은 Lee Jung Young 의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ublishers, 1995. 마지널리티: 다문화시대의 신학. 신재식 역. 포이에마, 2015) 4 장 참조.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접근은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난다 (눅 10:25-37). 예수께서 선한 이웃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리더십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은 유대인들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 만일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사고와 그 사고에 기초한 행위들이라고 정의한다면, 본 비유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변방 중의 변방에 있던 사마리아인을 그들 앞에서 선한 이웃의 모델로 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지를 계시하신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으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음을 본 비유는 극명히 보여준다. 바리새인이나 레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종교”였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들은 항상 사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종교를 통하여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며 중심에 살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기득권, 즉 “중심성(centrality)”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약자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득권에 위해가 된다고 여긴 예수님을 그들은 정치적 모함으로 처형받게 하였다. 유대 사회의 중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전통이 세운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을 섬기는 신중 우상숭배자로 퇴락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와는 거리가 먼 위치를 선호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말았다. 본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해석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다중적인 메시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는,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행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적 가치이며 신적 관점인 것이다.

3. 교회사 속에서 발견되는 변방성과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인들이었다. 2 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황제에 대한 종교적 충성을 거부함으로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고, 카타콤으로 피신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제국의 변방인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4 세기에 기독교는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기독교 공동체는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중심에 안착시키고자 애쓰기 시작하였다. 이제 교회는 신앙의 자유라는 새로운 사회적 국면을 맞으면서, 공동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사회에 안정적으로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잘 알고 있듯이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하여 공인되면서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유럽 전체와 외지로도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제 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명실공히 사회의 중앙에 위치하기 시작하였고, 변방성은 교회와는 거리가 먼 과거의 간증이 되어 버렸다. 중세에 와서 교회는 거대한 제국의 정치 및 경제적 힘과 경쟁하거나 타협하면서 주류 사회의 실세가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대변해 주는 종교가 되었고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불행히도 서방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내부적인 부정부패로 계속 굽아가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이슬람 세계와 군사적으로까지 경쟁하면서 기독교의 참 본질을 상실해 가는 듯하였다.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부패한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디어 16 세기에 와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교회는 점점 그 본질을 잃는 듯하였다. 중심이라 함은 사회적 힘과 무관하지 않기에, 사회적 힘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면서 신앙 공동체 역시 정치적 구조와 비인격적 제도로 그 틀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 가치에서 “사람”이 빠지고 “힘”이 그것을 대신하는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추구하고 외치는 이들은 자연히 교회의 중심 세력에 의하여 소외되거나 정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들은 다시 변방에 놓이게 되었는데, 16 세기를 전후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변방인 범주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변방인들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들은 이 복음을 살고자 하는 선교적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교회사를 들여다 보면 복음을 재발견한 이들이 언제나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었는데, 그들은 늘 소수의 변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사와 선교 역사 속에서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쓰임을 받았던 이들은 그 사회의 중심보다도 변방에 놓여 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바빌론으로 상징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변방에 놓임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맞서 나감으로써 “거룩” 즉 세상과 구별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들이다. 따라서 “거룩”의 개념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변방의 개념과 선교학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학적으로 변방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는 약자이고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기도 하였지만, 선교학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결코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나그네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변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치를 좇기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변방인 됨을 주저하지 않고, 또 사회의 변방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의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변방인이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순으로 여겨지겠지만, 교회는 변방을 늘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과 구령의 열정을 가진 거룩한 믿음의 선교적 공동체이어야 한다.

4. 변방인들에 대한 접근: 교회의 선교적 과제

마태복음 15 장 28 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변방의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본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만을 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다. 성경 본문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서 전반에 흐르는 복음의 제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을 고치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고 이미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님의 태도와 치유를 통해서 사회적 수치로부터도 자유함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본문에서 중요한 선교적 차원 하나를 더 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예수님의 태도와 사역을 통하여 갖게 될 제자들의 변방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을 것이다. 23 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보내라고 하였다. 무의식중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였다. 본인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착각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세와 메시지는 전혀 달랐다. 마태가 의도한대로 제자들을 포함하여 마태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마태복음 1 장의 족보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말(창 38)과 라합(수 2)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의 변방인들이었다. 그러한 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자민족중심주의적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태도와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을, 수많은 이름 없는 다말과 라합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인식이 어떠해야 할 지를 배우게 된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4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Dalit 들, 사회에서 멀리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사회에서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질병들을 갖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 문화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변방인들 (무숙자들, 정신질환자들, 장애인들, 빈민들, etc.) . . . 교회들은 이들을 생각 속의 변방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고지론”을 고수하며 이에 매료되거나 영적 혹은 사회적 엘리트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교회는 변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누가 변방인들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내면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음 사역자들은 변방인들을 연구(research)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어떠한 사역적 접근을 해야할지를 고심하고 사역의 내용들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변방인들에게 사랑과 공화로 다가갈 때에는 우리도 변방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진지한 자기 성찰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변방인은 결코 잊혀진 자들이

아니다. 변방인이 되어 변방성을 안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방향성이 변방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늘 인지해야 할 것이다.